

독일 녹색당 = 친미 반동 정당

○ ○

러·중과 양갈래로 접근했던 ‘메르켈 모델’은 독일 국내에서도 벽에 부딪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총선에서 메르켈의 기민련(CDU)이 승리할 경우 총리 후보로 기대했던 아르민 라셰트 당대표가 갈수록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반유대주의자라는 악재까지 터진 상태다. 총선 전초전으로 최근 치러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라인란트팔츠주 의회 선거에선 녹색당과 사민당(SPD)이 각각 승리했다. 특히 여성 당대표 안나레나 베어복(40)이 이끄는 녹색당의 약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메르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및 백신 공급 지체 탓에 CDU의 인기가 곤두박질하는 가운데 녹색당은 독일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주정부 16개 중 11개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독일 녹색당의 약진을 반기는 것 자체가 변화의 방증이다.

재정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블랙 제로(Black Zero) 정책에 충실해온 메르켈과 달리 중도 리버럴 정당으로 변신한 녹색당이 미국식 재정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메르켈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에 강경한 베어복의 외교노선 역시 월가가 환영하는 이유다.